

## 2013년(제55회)도 사법시험 지원자 최종 1만 89명

- 전년대비 28.1%p 줄어...감소세 비슷, 제1차 지원자 9232명...면제자 857명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되어 11일 마감한 올해 사법시험 지원자는 1만명 선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법률저널이 14일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지원자 수를 확인한 결과, 총 지원자는 1만8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대비 28.1%(3,946명)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같은 감소폭은 지난해의 감소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지원자는 1만4천35명이었으며, 2011년도 1만9천536명에 비해 28.2%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13년도 1차 지원자는 9,232명이었으며, 이는 지난해(12,766명)에 비해 27.7%(3,534명)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1차 지원자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감소폭이다. 1차시험 면제자는 총 857명이었으며 지난해(1,262명)에 비해 32.1%(405명)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이는 최종선발인원이 200명 감축에 따른 것이다. 사법시험 지원자가 2000년대 초에는 3만명선까지 달했으며 이후 줄곧 2만명선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맞물려 2008년 2만 3천656명을 정점으로 줄곧 하향 추세를 그려왔다.

사법시험 출원자가 2011년 2만명선이 무너진 이래 1년 만에 또 다시 1만 5천명선이 무너져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조인 양성이 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01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의 지원자가 역대 최저인 7600여명에 그친 데 반해 300명 선발하는 사법시험의 지원자가 1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학과목 이수 등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수험생은 2013.1.3.(목)~2013.2.22.(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3.2.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다. (법률저널 인용)